

최근 수정일 : 2025. 6. 5.(목)

■ [공통: 독서·문학]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⑤ 09. ①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③ 23. ③ 24. ④ 25. ② 26. ③ 27. ① 28. ① 29. ③ 30. ②
 31. ③ 32. ⑤ 33. ⑤ 34. ④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동형이의어의 의미 확정’

지문해설 : 이 글은 독서를 할 때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형이의어는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인데, 독자는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우선적으로 고빈도 단어의 의미를 떠올린다. 만약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을 때에는 제약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확정하게 된다.

[주제] 독자가 고빈도 단어,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으며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형이의어들이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라고 하였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 3문단에서 동형이의어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고빈도 단어를 떠올리고,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동형이의어 중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확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빈도 단어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을 때 동형이의어 중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는 진술이 ㉠에 부합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독자가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장이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을 위해서는 고빈도 단어를 우선적으로 떠올린다고 하였으므로 동형이의어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는 의미 확정이 쉽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고빈도 단어라고 해서 그 의미로 문장이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학생이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선박과 과일 둘 다 자연스러웠다고 한 이유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에서 두 가지 의미 모두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의 두 가지 의미 모두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다’라는 서술어는 선박과 과일 모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성이 약하며, 의미 확정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학생은 선박을 볼 수 있는 곳과 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떠올리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④ 학생은 앞의 문장들에서 배가 선박과 과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뒤, 세 번째 문장에서 제약성을 통해 과일로 의미를 확정하고 있다. ⑤ 학생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리’가 교량이 아니라 신체 부위라고 의미를 확정하고 있다.

[4~9] 독서

[4~9] 주제 통합, (가) ‘세 가지 법 모델의 출현 과정’ / (나) ‘임대차 계약 갱신’

지문해설 : (가)는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는 세 가지 법 모델의 출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법이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누릴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삶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하나,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모델에서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 세 가지 법 모델은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어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주제]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는 세 가지 법 모델의 출현 과정

지문해설 : (나)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제도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의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일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진다. 한편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이지만, 당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주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현재의 법체계에 공존하는 세 가지 법 모델이 각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의 2문단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에 우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법 모델들의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둘 다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 즉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안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A]에서 ㉠‘이러한 악순환’이란 법 규범에 의해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면 갈등 상황에서 공동체가 점점 더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 상황에서,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 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상황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게 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다. ㉠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이다. ④ ㉠의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의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법 규범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의 상황에서

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삶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후,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다.

7.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의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②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의 권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임차물이 생업의 근거인 상가일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 ② (가)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가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은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강조하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선지에 제시된 ‘삼다’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부딪히다’의 문맥상 의미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게 되거나 마주 대게 되다.’이다. ③ ㉢ ‘어렵다’의 문맥상 의미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이다. ④ ㉣ ‘남다’의 문맥상 의미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들인 밑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더 얻다.’이다. ⑤ ㉤ ‘내놓다’의 문맥상 의미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 놓다.’이다.

[10~13] 독서

[10~13] 과학 · 기술, '수소의 저장, 운송, 추출 및 활용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를 저장, 운송, 추출하기 위한 방식과 수소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탄소 배출 없이 생산 가능하지만,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저장과 운송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으나,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안으로 액상 유기 화합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액상 유기 화합물 방식은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MCH)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을 이용하는데, 기존의 석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된 전환 과정에서 화합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액화 암모니아를 활용한 방식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성하는데, 기존 비료 산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생산이 편리하나 독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산화 극에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고, 수소 이온과 전자가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친환경적인 특징이 있다.

[주제]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 수소의 저장, 운송, 추출 방식의 특성과 수소 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수소 이온이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성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 분해, 광분해, 열분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수소 연료 전지의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를 바탕으로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11.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은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생성된다고 하였다. 따

라서 ㉠ 분자 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총 여섯 개이다. 반면 ㉡은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은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은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은 휘발유와 유사해 석유 저장·운송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은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둘 다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의 전환율은 0.9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이 0.6인 ㉡에 비해 더 많은 암모니아가 반응한다. 3문단에 따르면 암모니아 분해 반응 시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므로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와 생성된 수소 기체의 몰 수는 비례한다. 따라서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 더 많은 암모니아가 반응한 ㉠이 ㉡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윗글의 ㉠과 <보기>의 ㉡는 모두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3문단에 따르면, 열분해 방식과 전기분해 방식에서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과 ㉡ 모두 질소 기체를 생성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그리고 부반응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윗글의 3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에서도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해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③ 3문단에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의 전환율은 $6/10=0.6$ 이다. ㉠의 전환율은 0.9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의 전환율이 ㉡의 전환율보다 더 크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열분해 방식과 전기분해 방식에서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다. 따라서 ㉠과 ㉡에서 모두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쓰이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이 이용되다.’의 뜻이므로, ‘충분히 잘 이용되다.’의 뜻인 ‘활용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의 ‘줄이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의 뜻이므로,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짧게 줄이다.’의 뜻인 ‘단축하다’로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㉕의 ‘만들다’는 ‘새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다.’의 뜻이므로,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다.’의 뜻인 ‘제작하다’로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㉖의 ‘얻어지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게 되다.’의 뜻이므로, ‘학문이나 기술 따위가 익혀져 자기 것이 되다.’의 뜻인 ‘습득되다’로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⑤ ㉗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이므로,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의 뜻인 ‘성행하다’로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14~17] 독서

[14~17] 인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하는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의 모든 존재에 대해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인 ‘인포그’로 보았다. 이를 통해 그는 도덕적 주체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인공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칭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중첩된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가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

[주제] 플로리디 정보 철학의 기본 입장과 세계 인식

14.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하며,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경험주의에서의 ‘있음’은 ‘경험될 수 있다’의 뜻으로 정의되지만,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서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의 뜻으로 정의된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예시에 따르면,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영향을 주고 받는 정보가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

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즉, 생략되는 정보는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이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 둘 이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추상화 층위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세계에 대한 정보는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인포그의 정보는 주체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중첩된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그가 속한 공간, 즉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인포그가 속한 공간을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또한 3문단에서는 인포스피어를 주체와 대상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포그는 특정 층위에 따라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3문단에서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포그들이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공간이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플로리디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플로리디는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빵의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빵이 맛있다.’라는 음성 정보가 촉발된다는 예시를 고려할 때 모든 정보가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진술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단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진술은 인간중심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 ④ 3문단에 따르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이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며,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체가 속한 공간이 주체가 택하는 인식적 매개 경로에 영향을 받는다는 진술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며,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생명 중심 윤리학에서는 도덕의 주체와 도덕적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한다. 따라서 인공물이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반면 플로리디의 입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공물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과 상충한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칸트와 달리 AI-TCS가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플로리디는 AI-TCS를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로 본다. 그러므로 AI-TCS에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플로리디와 칸트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호모포이에티쿠스는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와 구별된다. 플로리디는 AI-TCS를 도덕 행위자로는 간주하지만, AI-TCS에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호모포이에티쿠스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한편 칸트 윤리학의 관점에서 AI-TCS는 자유 의지를 갖지 않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도덕 행위자가 되지 못하는 존재이다. ③ <보기>에서 호모포이에티쿠스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포스피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인간을 가리킨다. 플로리디는 호모포이에티쿠스가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예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므로,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AI-TCS와 같은 인공물은 도덕적 주체나 도덕적 평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플로리디는 AI-TCS와 같은 인공물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플로리디의 관점에서 AI-TCS는 인포그로서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며 다른 인포그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는 AI-TCS와 같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위해 호모포이에티쿠스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보았다.

[18-21] 현대 소설 - 이범선, '표구된 휴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도시로 나온 청년에게 쓴 편지를 통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박하고 진솔한 사랑을 드러낸 작품이다.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되는 액자 소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회인의 관점에서 어리숙하기만 한 청년의 이야기와 청년의 집에서 청년에게 보낸 편지가 수시로 연결되는 형식을 통해, 삭막한 도시 문명과 대비를 이루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소박하면서도 진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투박하면서도 거칠지만 진솔한 사랑이 담긴 부모의 편지야말로 국보와 같이 소중하므로 표구하여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박하고 진솔한 사랑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화실에 액자를 걸어 둔 화가는 액자가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고 하였다. 또한 그 액자에 표구된 편지를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가'는 편지를 표구할 수 있는냐는 '친구'의 질문에, 편지가 창호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표구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화가'가 편지를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창호지로 지칭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가'는 '친구'가 가져온 종이를 표구해서 무엇하나, 그 종이는 어디서 주워 온 '휴지'냐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가'는 '친구'가 가져온 종이를 주워 온 '휴지'라고 칭하며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가'가 눈앞의 종이를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표구사 주인'은 '화가'가 종이를 국보급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구사 주인'이 '화가'가 말한 것과 같이 그 종이가 국보급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가'는 표구를 맡긴 것을 잊고 있다가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자 갑자기 표구를 맡긴 사실을 기억하고 표구사로 간다. 그리고 표구사에서 표구된 액자를 보며 그 종이가 정말 국보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가'가 자신이 맡긴 종이를 국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표구를 찾으러 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청년'은 은행에 방문하여 '여직원'에게 돈의 입금을 부탁하고,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여직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저만치'는 '청년'과 '여직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한구석'은 은행 안에 있는 '청년'

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A]에서는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청년’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청년’과 ‘여직원’ 사이에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한 부분이나 인물을 비판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A]에, ‘청년’과 ‘여직원’ 사이에 벌어진 일과 ‘청년’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물 간의 갈등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에는 은행을 찾아온 ‘청년’이 ‘여직원’을 만나 돈을 입금하게 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을 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입금을 마친 ‘청년’은, 통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굵신굵신 절을 하며 조심스럽게 은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므로 [A]에서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며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청년의 집에서 온 ‘편지’에는 순이는 시집을 안 간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라며 아들에게 빨리 장가를 갈 것을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혼사와 관련하여 ‘청년’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는 편지 내용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편지에는 우물집 할머니, 장손, 곰보 영감 딸, 탄실이, 순이와 관련한 소식이 담겨 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가 수신자인 ‘청년’에게 해당 인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편지 속에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수신자인 ‘청년’이 알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 처서무그라.’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편지를 쓴 이가 수신자인 ‘청년’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너가더조타한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수신자인 청년을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㉞는 ‘청년’의 이야기이고 ㉠는 ‘화가’의 이야기이다. ‘청년’이 종이에 쓴 돈을 입금해 달라고 ‘여직원’에게 부탁하고 구석으로 간 내용은 ‘청년’의 이야기인 내화에 해당하고, ‘이게’ 이후의 내용은 ‘화가’의 이야기인 외화로, 내화와 외화가 지시 표현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게’로 지칭되는 종이는 내화에서 ‘청년’이 돈을 썼던 종이이므로 ‘이게’라고 연결되는 외화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던 내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㉞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었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계꾼이 있단다’라는 말은 ‘화가’가 ‘친구’를 통해 들은 내용을 서술한 것이므로 ‘화가’의 이야기인 외화(㉠)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청년’의 이야기인 내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화(㉠)에서 내화(㉡)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외화에서 ‘친구’는 ‘청년’이 가지고 온 종이가 편지이며 그 내용이 재미있다고 ‘화가’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인용된 편지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모두 틀린 채 주변 인물들의 소식을 짧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외화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שי시 웃’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④ 외화(㉠)에서 ‘화가’는 ‘친구’의 비행기가 떠날 때 문득 편지 생각이 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났다.’이다. 그런데 외화의 ‘떠날’과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떠나고’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으로서, ‘화가’는 외화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 적혀 있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그길로 표구사로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라는 외화(㉠)의 내용 뒤에는 또 다른 내화(㉢)의 편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인용된 편지 내용 중 ‘순이는시집안갈끼라 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는 앞서 인용되었던 편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같은 편지 내용을 다시 삽입한 것은 외화의 ‘화가’가 편지 내용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26] 문학

[22-26] 갈래 복합 - (가) 홍정유, ‘동유가’ / (나) 이태준, ‘해촌 일지’

지문해설 : (가)는 일기 형식을 차용하여 금강산까지의 여정과 금강산 및 그 주변 지역을 유람한 경험에 대해 적은 국문 기행 가사이다. 날짜별 여정, 경유지에 대한 견문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전기 기행 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서정성과 유교 이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여행지의 자연 풍경과 여행지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견문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불어 몇몇 관찰 대상에 대해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미함으로써 작품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주제] 금강산 유람 경험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동

지문해설 : (나)는 글쓴이가 동해의 명소를 기행한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쓴 수필이다. 지문에 실린 내용에서는 관동 팔경 중의 하나인 ‘총석정’을 방문하기 전에 들른 ‘송전’에서, 글쓴이가 관심을 기울인 ‘솔’이나 ‘바다’, ‘보름달’ 등의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밤에 다시 방문하여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성스럽고 여기는 대목은 글쓴이의 감흥을 세밀하게 전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동해를 기행하면서 느끼는 감흥과 자연 친화적 태도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의 ‘돌 하나’의 모습에, (나)는 ‘솔’, ‘바다’, ‘보름달’ 등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며 그것에 대한 관심과 정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속성을 달의 덕성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운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짹짹 소리가 날 듯 양명하다.’는 계절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솔밭의 정경에 대한 묘사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에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라는 표현을 통해 비가 오면 경치를 보기 힘들다는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이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자연의 극한적 상황이 제시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했으나 비가 오기 때문에 경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사다리도 미끄러울 것이라며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만류하는 바람에 방문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은 화자가 가려던 길로 볼 수 있다. (나)의 ㉡는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 해탈, 거기엔 떡 뽕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등을 통해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로 볼 때, ㉠은 현재 날씨의 영향을 받아 화자가 갈 수 없는 길이다. ②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로 볼 때, ㉡에서 글쓴이

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로 볼 때, (가)의 화자는 일행들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⑥는 글쓴이가 마음에 들어 낮과 밤에 혼자 계속 걷는 길로,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 아니다. ⑤ ⑥는 글쓴이가 걸으면서 감흥을 느끼는 편한 길로 볼 수 있으나, ㉔는 비로 인해 걸기를 포기한 길이므로, 편한 길로 볼 수 없다.

2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중’에게 전해 들은 말 중에서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를 통해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것은 화룡임을 알 수 있고, ‘들으니 그럴듯해 건넌산 바라보니’를 통해 화자가 사자봉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를 통해 사자 형상의 발밑에 돌이 끼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돌의 위치는 사자봉 파인 곳이다. ③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작중 상황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바다로 나가는 정하고 고운 길을 걸으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 세워진 철봉을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 철봉에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뽕-얀 수말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울려 쓴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달빛만이 짝-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좌- 좌- 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글쓴이가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것은 낮에 걸었던 장소인 ‘바다로 나가는 길’을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것은 주막집 바로 곁의 장소를 구경한 것이지,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점심을 먹은 후’라는 시간의 표지를 제시한 후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이동하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것은 글쓴이가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가진 ‘술’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이십일 일’과 (나)의 ‘7월 3일(금)’은 일기 형식의 날짜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과, (나)에서 여관의 ‘주인’이 ‘보름달’이라고 답한 일을 기록한 것은,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27~30] 문학

[27~30] 고전산문 - 작자 미상, ‘김진옥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창작 연대와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영웅소설이다. 천상에서 죄를 지은 선관 선녀(仙官仙女)가 인간 세상에 쫓겨와 시련과 역경을 겪은 뒤 행복과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으로 소설의 전반부에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을, 후반부에는 김진옥의 영웅적 활약상을 담고 있다. 적당 모티프와 물속 세계에서의 전쟁이라는 삽화의 개입을 활용하여 환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이뤄낸 김진옥의 사랑과 영웅적 활약

27.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의 ‘대성통곡’은 ‘노인’이 부친임을 알게 된 진옥이 헤어졌던 부친과 기적처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으로 볼 수 없으며, 이어서 ‘진옥’이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고 난 뒤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므로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대성통곡’은 노인이 대면한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인 진옥이라는 의외의 사실을 확인하고 보인 반응이며, 이는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겨 ‘기절하고 엎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③ ㉡의 ‘대희’는 동국 용왕이 침노했으니 적병을 소멸해 달라는 용왕의 요청에 대해 진옥이 ‘힘을 다하여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자 그 태도에 만족한 용왕이 보인 반응이다. 이는 또한 용왕이 진옥에게 적병을 소멸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④ ㉢의

‘대경실색’은 원수인 진옥이 실종되어 표풍한다는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이는 유 승상이 가족인 ‘부인’과 ‘소저’와 함께 진옥이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⑤ ㉔의 ‘대로’는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걸며 ‘풍운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이는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기 위해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드는 행위로 이어진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옥피리 소리’는 진옥이 탄 배가 ‘만경창파에’ 뜬 가운데 들려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인 ‘동자’에 대한 진옥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㉕의 ‘일엽편주’는 인물들이 계획하여 당초 목적인 곳인 고국으로 가는 항해가 지속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 용왕의 청에 따라 ‘수부’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자가 타고 나타난 것이다. ㉓ ㉔의 ‘백옥상’은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익이 거룩한’ 용궁의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어울려 용왕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주변 풍광과 대비되거나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㉔ ㉕의 ‘청전검’은 ‘동국 용왕’이 들고 진옥에게 달려든 무기이다. 진옥은 싸움에서 이겨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게 되었으므로, 청전검은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한 소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국 용왕의 상대인 진옥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준 소재로도 볼 수도 없다. ㉓ ㉔의 ‘항서’는 ‘적진 군중에서’ 쓴 것으로 적이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진옥이 ‘동국 용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을 감추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건네받는 인물인 진옥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로도 볼 수 없다.

29.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에 대해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㉔에서처럼 황제가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㉑ 노인이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기 난중에 잃었’다거나 ‘화초함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㉔에서처럼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㉒ 진옥이 부친에게 ‘전후사를 날 낚이 설화’한 뒤,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㉔에서처럼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감

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우양 공주가 진옥을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다가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어 모함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에서처럼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가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 죽이려’ 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은 동국 용왕의 지경 침노에 의한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생긴 문제를 진옥에게 대신 해결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것으로 보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인 동국 용왕과 그의 병사들과 ‘대진’하는 장면은 ‘남해 용궁’과 같은 초월적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인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를 두고 <보기>의 내용에 따라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진옥이 ‘장사진’을 펼치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 용궁의 ‘제장’이 ‘과연 명장’이라고 ‘칭찬’한다. 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초월적 세계인 수부의 존재인 장군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용왕은 진옥에게 적병을 소멸해 주기를 부탁하며 ‘공을 표창’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진옥이 적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자 용왕은 진옥의 공덕을 ‘치사’하며 ‘동해군’으로 ‘봉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31~34] 문학

[31~34] 현대시 - (가)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나) 신석정, ‘역사’

지문해설 : (가)는 살구꽃이 핀 봄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과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살구꽃뿐만 아니라 벌, 나비, 소, 마을 사람이 생명의 기운 속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짧은 순간 동안 피고 질 살구꽃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는 소중한 담담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살구꽃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나무 등치들을

떠올리고는, 그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주제] 살구꽃이 핀 봄날의 정경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수용

지문해설 : (나)는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한다. 화자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보며 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민중의 연대 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중심 소재인 ‘살구꽃’을 ‘꽃, 꽃구름’ 등으로 나타내며 반복하여 제시하고, (나)는 중심 소재인 ‘달래꽃’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아 하늘의 기둥들!’과 같은 구절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는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에는 ‘꽃구름’과 ‘허영게 매달’린 ‘낡은 귀신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대립적인 상황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바윗돌처럼 뚫고 솟아오른 대지’와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등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32.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화자와 ‘꽃구름’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는 ‘꽃구름’과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군소리 없이’ 생명을 떠받치는 존재로서 ‘검은 동치’를 떠올리고는, 이를 ‘아 하늘의 기둥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화자는 ‘이 집’, ‘저 집’, ‘빈집’을 바라보면서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의 형태와 ‘분홍빛’ 살구꽃의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다고 하고,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등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교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화자가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꽃구름’의 모습

을 바라보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검은 둥치들이’ ‘구름’을 ‘군소리 없이’ ‘잔뜩 인 채 서 있겠지’라며 그 모습을 떠올린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너’를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밝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너’와 함께하는 데에 삶의 의의를 두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저 하잘것없는’은 ‘달래꽃’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며, 화자는 그러한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달래꽃’이 피어나는 이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얼어붙었던 대지’는 ‘달래꽃’이 피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 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 모습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달래꽃의 긴긴 역사’와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빚어낸 결과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를 ‘찬양’하는 것은 달래꽃이 가진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달래꽃’이 피어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예쁘디예쁜 손’은 ‘달래꽃’에 속한 대상이다. 그리고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짚 수 있’다는 것은 화자가 함께하는 ‘달래꽃’과의 결속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화자가 ‘위대한 역사’를 지닌 ‘달래꽃’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소망을 성취하는 상황에 대한 역사적 전망이 ‘환히 트인 길’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에서 화자는 ‘살구꽃’이 달포 뒤쫓에도 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 경우 ‘살구꽃’이 보일 ‘남은 귀신들처럼’ 흉한 모습을 ‘허영게 매달려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쫓’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살구꽃’을 하늘의 ‘구름’으로, 땅 위에서 꽃을 받치고 서 있는 ‘검은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살구나무에 대한 화자의 내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과 ‘때맞춰 깬 벌’은 각각 작은 살구꽃과 작은 곤충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두 대상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부분에서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어서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화자가 생명의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화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의 영속성에 주목하여 ‘달래꽃’이 지닌 ‘긴긴 역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② 37. ⑤ 38. ① 39. ③ 40. ⑤ 41. ① 42. ④ 43. ① 44. ④
45. ②

[35~39] 언어

[35~36] 용언의 활용과 표기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용언이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를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j’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문단에서는 2문단에서 제시한 네 번째 유형과 관련하여 ‘르’ 불규칙 활용과 ‘러’ 불규칙 활용을 별도로 설명하면서 두 경우 모두 활용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쓰+어[써]’의 경우처럼 ‘본뜨+어[본떠]’에서도 ‘으’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닿+아서[다라서]’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나는데 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 번째 문단에서 ‘르’ 불규칙 활용과 ‘러’ 불규칙 활용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쌓다’의 예를 들어 ‘쌓+고[싸코]’에서는 거센소리되기, ‘쌓+아[싸아]’에서는 ‘ㅎ’ 탈락, ‘쌓+는[싼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날+니[나니]’의 경우처럼 ‘풀+니[푸니]’에서도 ‘ㄴ’ 탈락이 일어나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⑤ ‘(정상에) 이르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주의 사항을) 이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이 ‘일ㄴ’로 바뀌어 ‘일러’ 등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러’ 불규칙 활용은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이며, ‘르’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이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회사에) 다녀’는 ‘다니+어’의 음절이 줄어 ‘다녀’가 된다는 점에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어울리려고’는 ‘어울리+려고’로 분석되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꼬+아서[꽂아서]’와 ‘보+아서[봐서]’ 모두 어간 말 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버티+어’가 ‘[버티여]’로 발음되는 경우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잇다’는 ‘ㅅ’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나무라+아서[나무라서]’는 어간 말 모음이 ‘아/어’인 경우의 동일 모음 탈락(㉢)의 사례이다. 그러나 ‘따라서’의 어간 ‘따르-’는 어간 말 모음이 ‘으’이기 때문에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담그+아[담가]’, ‘모으+아[모아]’는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 사례로 적절하다.

37.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걸려 버렸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이기 때문에 ㉠이 실현되었다. ‘보이다’는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이기 때문에 ㉡이 실현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손꼽히다’는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은 쓰이지 않았다. ② ‘담기다’는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는 쓰이지 않았다. ‘모아 왔다’에 쓰인 ‘오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이다. ‘오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그는 예전부터 사진을 모아 왔다.’에서처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한 기준점으로 향하거나 가까워짐. 또는 그렇게 계속 진행됨.’의 뜻을 나타낸다. ③ ‘친구가 마음이 여러서’에서 ‘마음이 여러서’는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는 쓰이지 않았다. ④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에서 ‘값이 올랐다’는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는 쓰이지 않았다.

38.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정답해설 :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함께 어울렸다.’가 ‘기억’의 내용에 해당하여, 수식받는 명사 ‘기억’이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아니라 ㉡의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건’이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났다.’의 주어에 해당하여, 수식받는 명사 ‘사건’이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③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방수가 잘되지 않는다.’가 ‘단점’의 내용에 해당하여, 수식받는 명사 ‘단점’이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④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전쟁이 끝나다.’가 ‘가능성’의 내용에 해당하여, 수식받는 명사 ‘가능성’이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⑤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새벽마다 운동을 했다.’가 ‘경험’의 내용에 해당하여, 수식받는 명사 ‘경험’이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뚝게(뚝개)’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고 끝음절의 모음이 ‘ㄱ’이기 때문에, ‘ㄹ/를’과 결합한다. ‘바를(바다)’은 끝음절에 받침이 있고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과 결합한다. ‘염규(부추)’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고 끝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ㄹ’과 결합한다. ‘아바님(아버님)’은 끝음절에 받침이 있고 끝음절의 모음이 ‘ㅣ’이기 때문에, ‘을/을’과 결합한다. ‘꿈(꿈)’은 끝음절에 받침이 있고 끝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과 결합한다. ‘벼로(벼루)’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고 끝음절의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ㄹ’과 결합한다. 이렇게 볼 때, ‘을’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바를(바다)’과 ‘아바님(아버님)’이다. ‘ㄹ’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뚝게(뚝개)’와 ‘벼로(벼루)’이다. ‘을’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바님(아버님)’과 ‘꿈(꿈)’이다. ‘ㄹ’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뚝게(뚝개)’와 ‘염규(부추)’이다.

정답 ③

[40~45] 매체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모든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자동 저장됨을 알려 주는 표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정보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에서는 자동 저장됨을

알려 주는 표지를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소민의 '[댓글]' 내용을 통해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제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는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는 ☒로 표시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공동 문서에 실시간으로 접속 중인 다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준모는 채현의 의견에 대하여 '😊'와 같은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나)에서 채현은 자료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주제와 관련한 '일정 수정-채현.jpg'라는 파일을 공유하고 있다.

41.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가)의 [A]에서 민정은 '책 선정'이라는 문구를 '서로 다른 책 선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나)에서 재균은 '서로 다른 책 선정'이 '모둠마다 각각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뜻'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채현도 '한 모듬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거고, 다른 모듬이 선정한 책은 읽을 수 없는 거지, 그렇지?'라며 민정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소민은 재균과 채현의 공통된 이해에 대해 '그래.'와 같이 동의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A]에 대해 재균은 '서로 다른 책 선정'이 '모듬마다 각각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뜻이지?'라며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균이 제기한 의문을 채현과 민정이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A]에 대해 재균은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으며, 소민은 '그래.'라고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채현은 '두 모듬까지는 같은 책을 선정할 수 있게 하면 어때?'라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A]에 대해 재균이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채현과 민정의 반응에 의해 재균의 이해가 교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가)의 [A]에 대해 채현은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으며, '두 모듬까지는 같은 책을 선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최근 경험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준모가 활동 계획서에 쓴 댓글'은 '△△변환기 앱'이 생소한 친구들이 해당 앱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 쓰인 지시 형용사 '그렇게'가 모듬 활동 기록 방법을 대신하여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모듬별로 활동을 진행한다.'와 비교할 때 ㉠에서는 명사 '진행'으로 끝나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지시 관형사 ‘이’를 통해 ‘이 앱’의 ‘앱’이 앞 문장에 제시된 ‘△△변환기 앱’임을 가리키고 있다. ③ ㉠에서는 ‘활동 계획서를 제안된 내용이나 댓글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의 ‘를’의 자리에 보조사 ‘는’을 사용함으로써 ‘활동 계획서’가 문장의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 쓰인 보조 동사 ‘드리다’는 보조 동사 ‘주다’의 높임말로, 화자인 소민이 문장의 객체인 담임 선생님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다.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 준모는 셋째 번 글에서 ‘우리 활동은 책 읽고 다양한 의견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데, 활동명에 토론을 넣어도 될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민은 준모의 의견을 수용하여 활동명을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의 ‘1. 활동명’을 ‘독서하고 토론하고’에서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한 것은 활동 기간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소민은 둘째 번 글에서 ‘16일 7교시 자율 활동과 ~ 100분으로 변경해야 할 거 같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가)의 ‘2. 세부 내용’에서 2025년 4월 23일의 활동 시간을 100분으로 수정하였다. ③ (나)에서 채균은 첫째 번 글에서 ‘△△변환기 앱을 몇 번 ~ 몰라서 헤맸었어.’라며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민정은 ‘나도 ‘종료’ 버튼을 누르면 ~ 어려움이 있었어.’라며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민정은 더불어 ‘이런 정보들이 ~ 좋을 듯해.’라며 앱 사용법을 하이퍼링크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의 ‘2. 세부 내용’ 중 비고란에 ‘▶△△변환기 앱 사용법’을 하이퍼링크로 추가하였다. ④ (나)에서 채현은 둘째 번 글에서 ‘모둠이 정해지고 책을 선정하는 게 활동을 진행하기에 편할 것 같아.’라며 모둠 구성이 책 선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가)의 ‘2. 세부 내용’ 중 비고란에 ‘▶모둠 구성 후 책 선정’을 추가하였다. ⑤ (나)에서 민정은 둘째 번 글에서 ‘학교 도서관을 확인해 봤는데 같은 책이 많지 않아 단체 대여는 힘들겠더라고.’라며 학교 도서관 보유 도서에 대해 언급하고, ‘개별 독서용 책은 각자 준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가)의 ‘2. 세부 내용’ 중 비고란에 ‘▶각자 책 준비하기’를 추가하였다.

44.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은 작성자와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나)의 게시글 작성자인 ‘지현’은 ‘신입 부원 모집 기준’이 아니라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 제작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따라서 신입 부원 모집 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묻고 있는 ‘지현’과 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정보의 노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내용’ 항목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3회와 4회의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상위 항목으로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앱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는 공지 사항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으로,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의 연결과 관련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먹거리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정보를 동아리 구성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⑤ ㉤은 댓글에 대하여 수용자들이 긍정 의사를 표현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화살표로 □□구 보건소가 배우는 곳임을 가리키는 게 어때?’라는 ‘태영’의 의견에 긍정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 ‘봉사 활동 장소가 여러 곳이니까, 어떤 곳들인지 각 장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로 알려’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은 현우이다. 정민은 현우의 의견에 덧붙여 ‘우리가 교육받는 □□구 보건소는 건물 이미지로 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재은은 ‘신입 부원 모집을 강조해야 하니까 왼쪽 상단에, 문장을 곡선 형태로 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은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스터의 왼쪽 상단에 물결 모양으로 신입 부원을 모집한다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③ (나)에서 윤호는 ‘가입 신청 경로를 알려 주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령은 이에 대한 댓글로 ‘신청 마감일도 포함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스터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아리 가입 신청 마감일 및 신청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날짜와 QR 코드를 제시하였다. ④ (나)에서 민영은 ‘배움과 나눔이 우리 활동의 긍정적 효과니까 이걸 적절하게 배치해서 강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민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스터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중앙의 네모 안에 관련 문구를 배치하였다. ⑤ (나)에서 은서는 ‘동아리의 주요 활동 두 가지도 알려’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민주는 이에 대한 댓글로 ‘그건 학생들이 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스터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측면에 말풍선을 배치하여 주요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였다.